|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

여론조사꽃 제3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4_03

ARS+CATI

제33차 ARS조사

제18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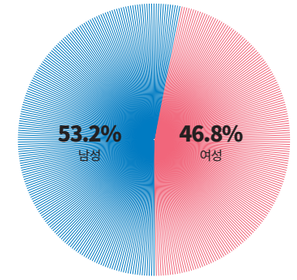
여론조사꽃 제3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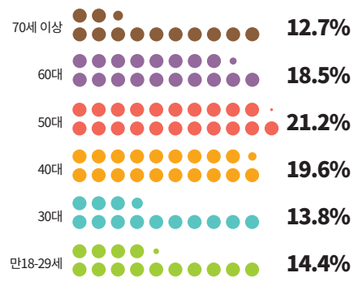
ARS &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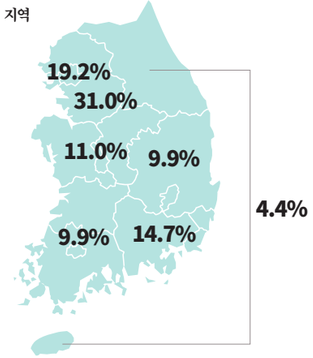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3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응 답 률	3.3% [총 통화시도 30,666명]
조사기간	2023년 4월 14일 ~ 4월 15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성별	남성	533	53.2	498	49.7	0.93
	여성	469	46.8	504	50.3	1.07
연령	만18-29세	144	14.4	166	16.6	1.15
	30대	138	13.8	151	15.1	1.09
	40대	196	19.6	181	18.1	0.92
	50대	212	21.2	195	19.5	0.92
	60대	185	18.5	170	17.0	0.92
	70세 이상	127	12.7	139	13.9	1.09
지역	서울	192	19.2	188	18.8	0.98
	인천·경기	311	31.0	319	31.8	1.03
	대전·세종·충청	110	11.0	105	10.5	0.95
	광주·전라	99	9.9	97	9.7	0.98
	대구·경북	99	9.9	99	9.9	1.00
	부산·울산·경남	147	14.7	150	15.0	1.02
	강원·제주	44	4.4	44	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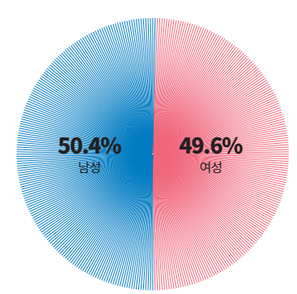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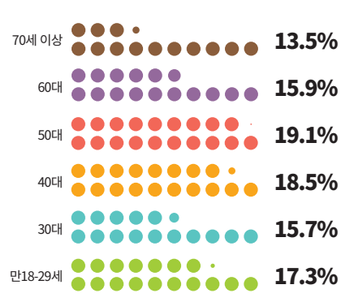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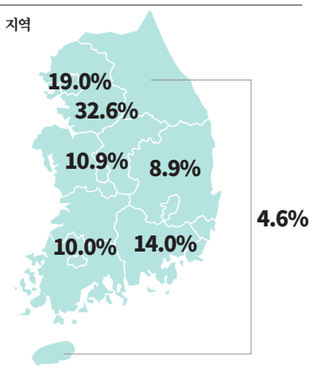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5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3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 답 률	16.8% [총 통화시도 6,025명]
조사기간	2023년 4월 14일 ~ 4월 15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전체		1,015	100.0%	1,015	100.0%	1.00
성별	남성	512	50.4	504	49.7	0.98
	여성	503	49.6	511	50.3	1.02
연령	만18-29세	176	17.3	168	16.6	0.95
	30대	159	15.7	151	14.9	0.95
	40대	188	18.5	185	18.2	0.98
	50대	194	19.1	198	19.5	1.02
	60대	161	15.9	172	16.9	1.07
	70세 이상	137	13.5	141	13.9	1.03
지역	서울	193	19.0	190	18.7	0.98
	인천·경기	331	32.6	322	31.7	0.97
	대전·세종·충청	111	10.9	108	10.6	0.97
	광주·전라	101	10.0	99	9.8	0.98
	대구·경북	90	8.9	100	9.9	1.11
	부산·울산·경남	142	14.0	151	14.9	1.06
	강원·제주	47	4.6	45	4.4	0.96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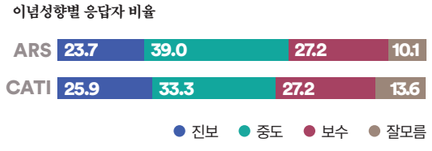
여론조사꽃 제3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3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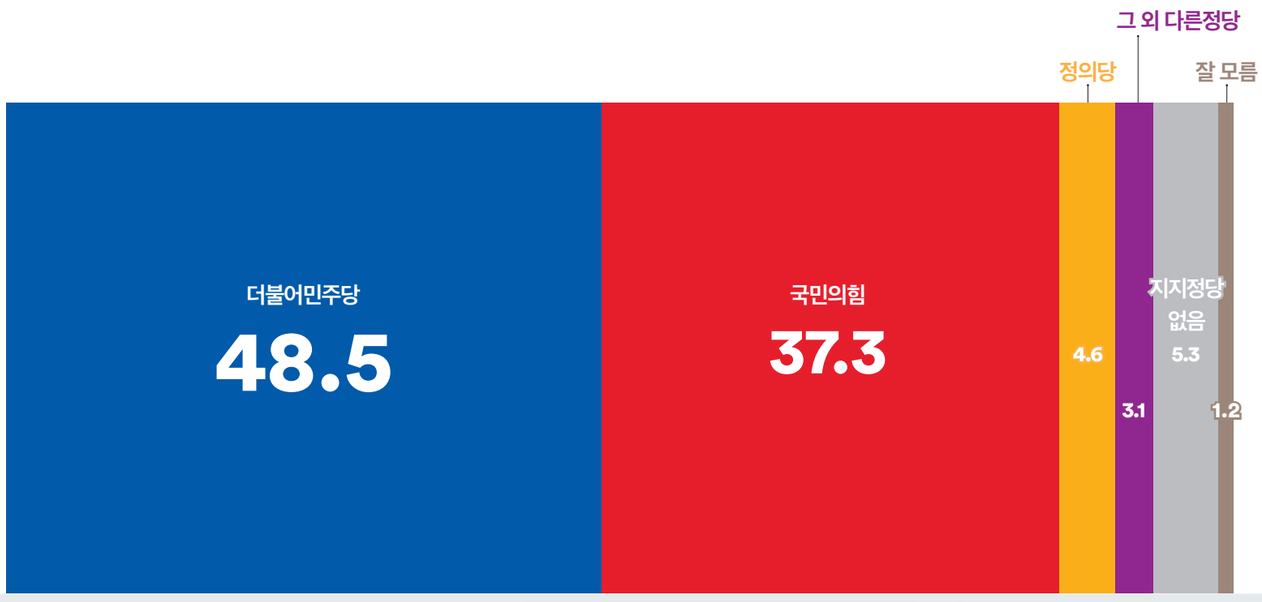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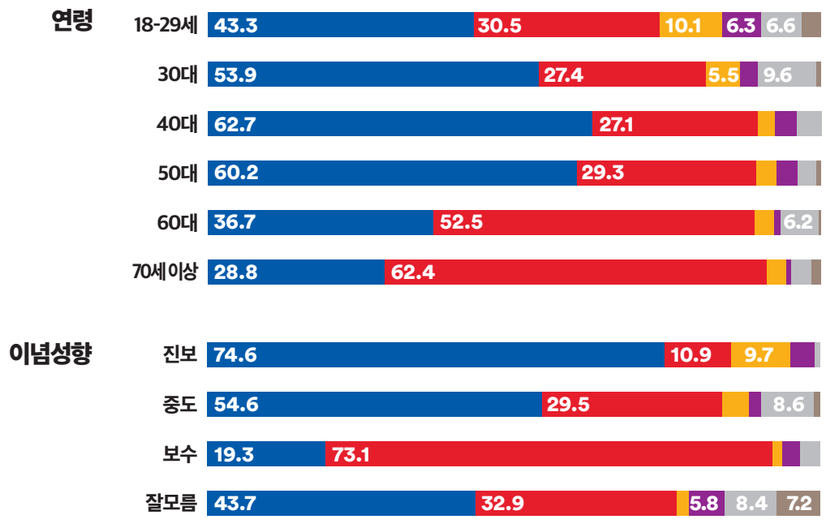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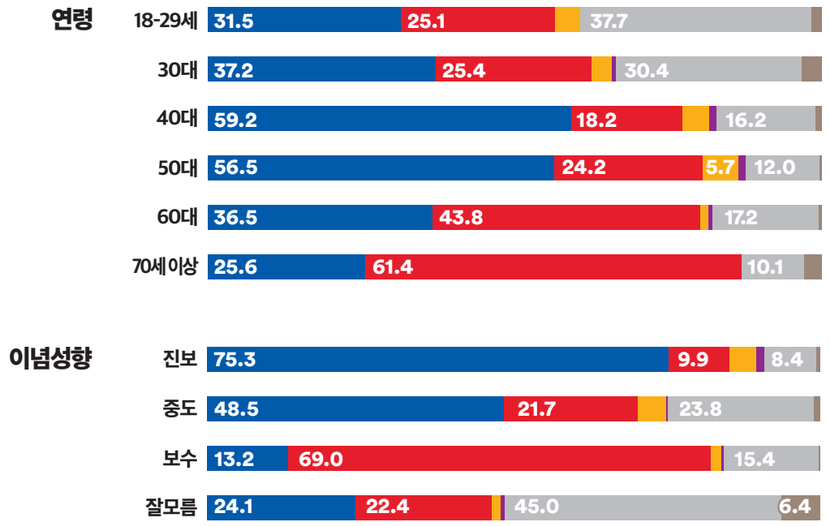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7%p 하락, 국민의힘 2.7%p 상승(격차 11.2%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4%p 하락, 국민의힘 0.1%p 하락(격차 10.4%p)
ARS조사는 경인·충청·호남권 더불어민주당 우세, CATI조사는 경인·호남권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은 TK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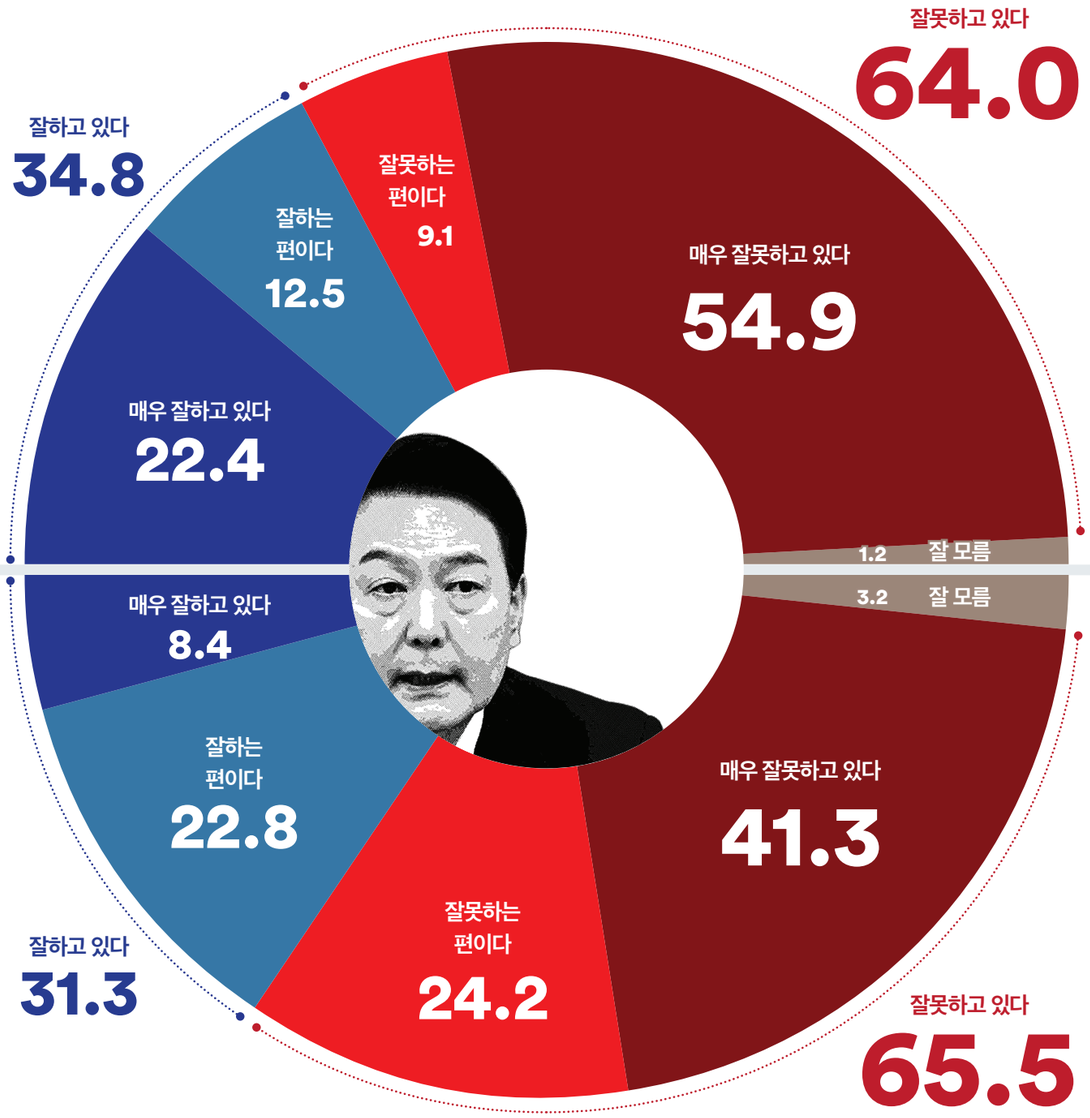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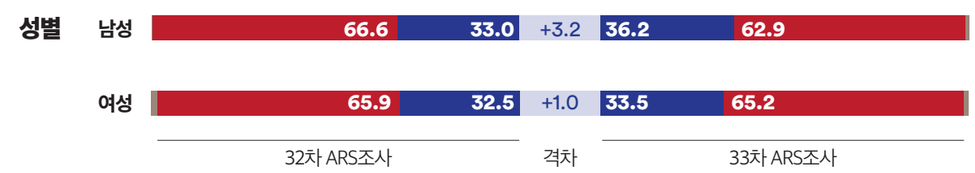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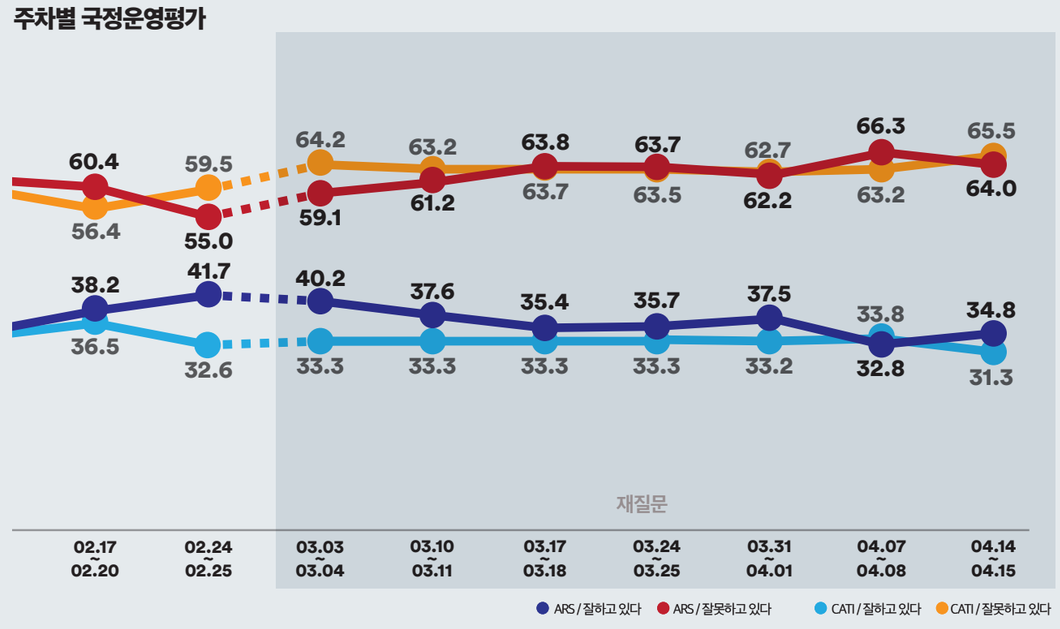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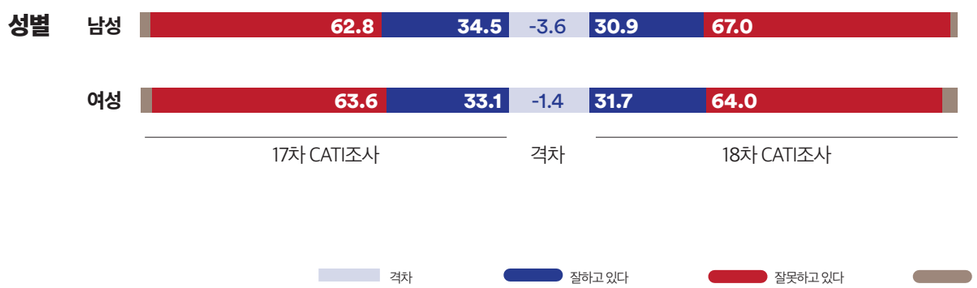
AR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2.0%p 상승, 부정평가 2.3%p 하락(격차 29.2%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2.5%p 하락, 부정평가 2.3%p 증가 (격차 34.2%p)
50대 이하 연령층은 부정평가 우세, 70세 이상 연령층은 긍정평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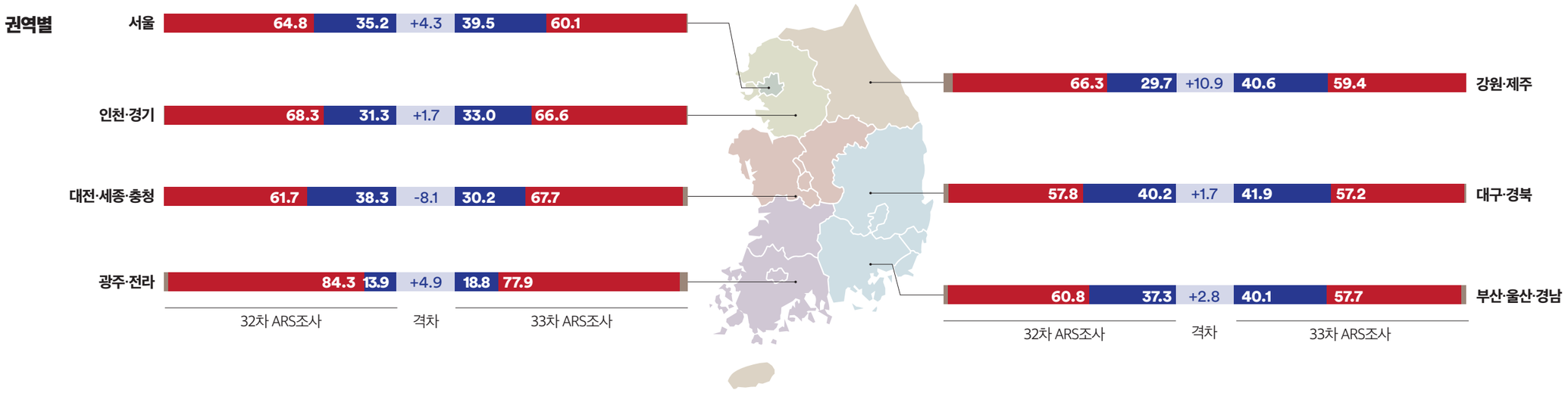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 대통령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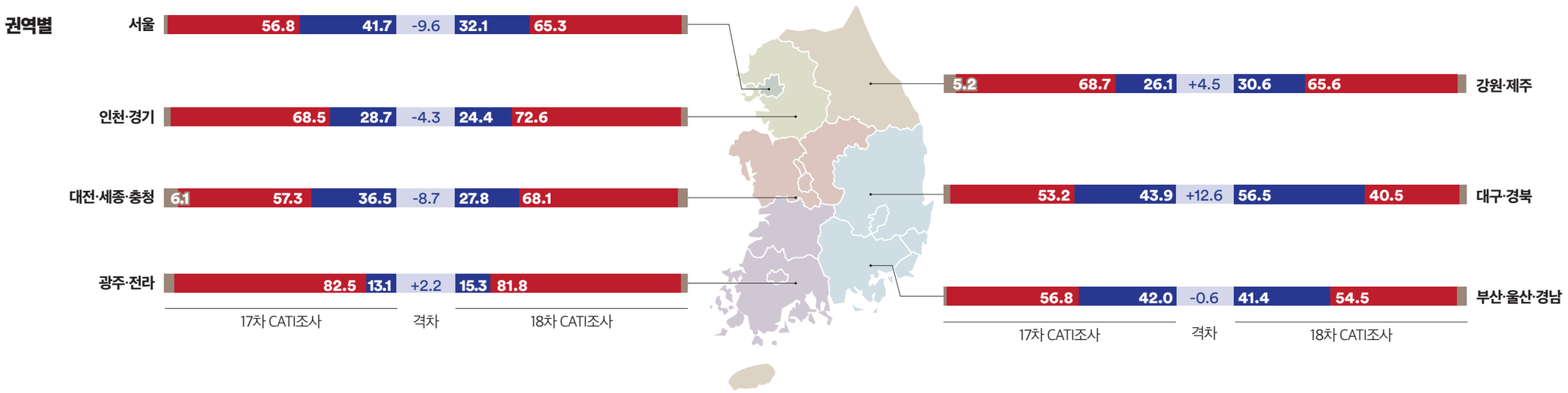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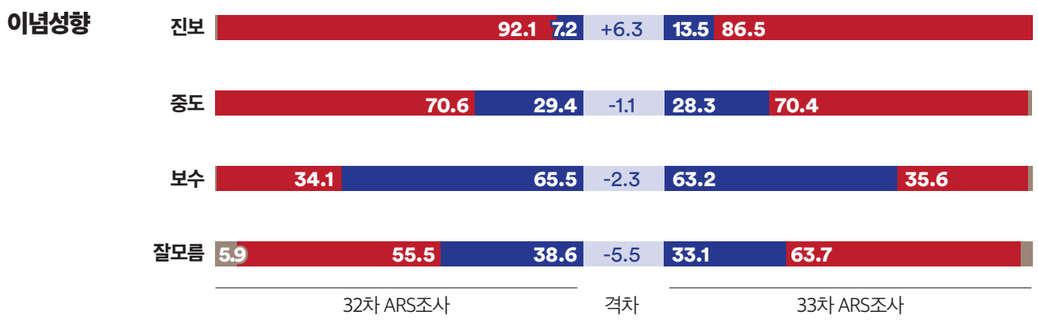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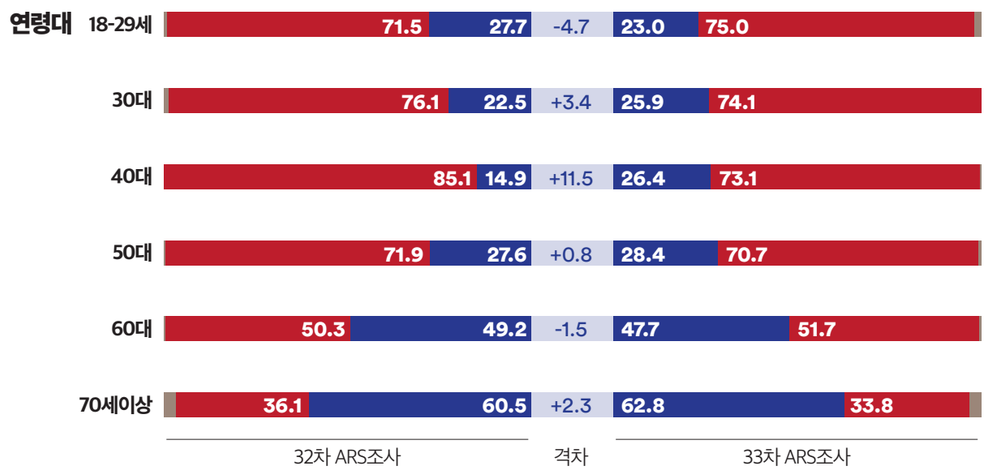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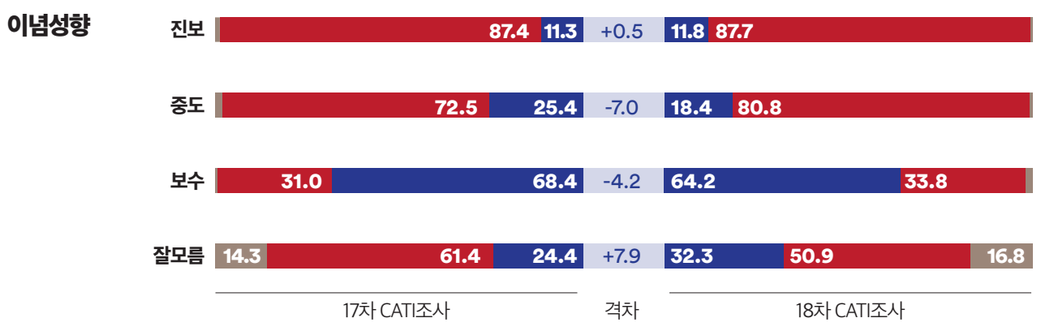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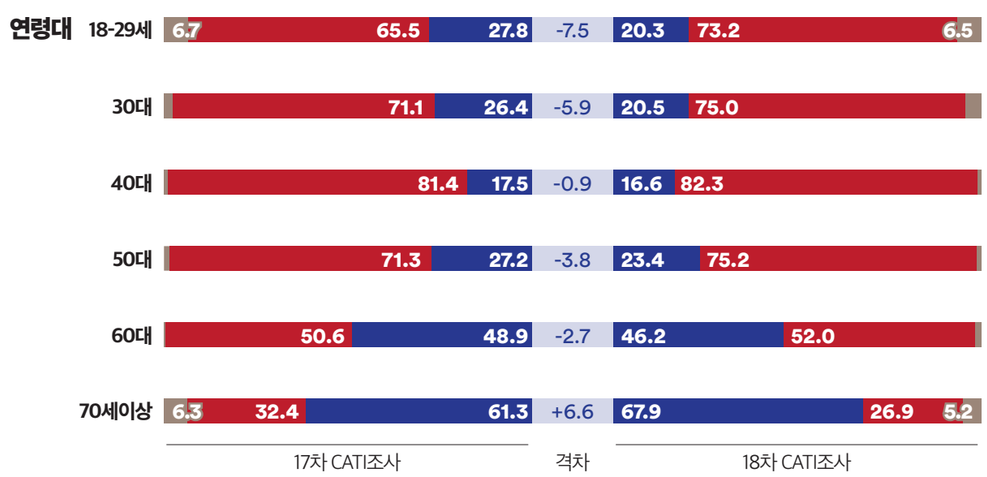
ARS





CATI





여론조사꽃 제3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대통령실 도청 의혹

ARS & CATI / CATI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실 도청 의혹

대통령실 도청 의혹: 살상무기 우회지원

대통령실 도청 의혹: 살상무기 우회지원 적절성

대통령실 도청 의혹: 대통령실 졸속 이전

대통령실 도청 의혹: 우리 정부의 대응

대통령실 도청 의혹: 외교안보 책임자의 자격

대통령실이 도청된 듯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말하며 이 의혹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이러한 일을 자초했다는 의견과 도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SNS로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155㎜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에 한국이 다량의 포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우회지원하기로 한 정황이 있습니다. 우회지원에 대한 자료내용이 사실일지, 또 이러한 지원이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은 없다"고 말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외교·안보 책임자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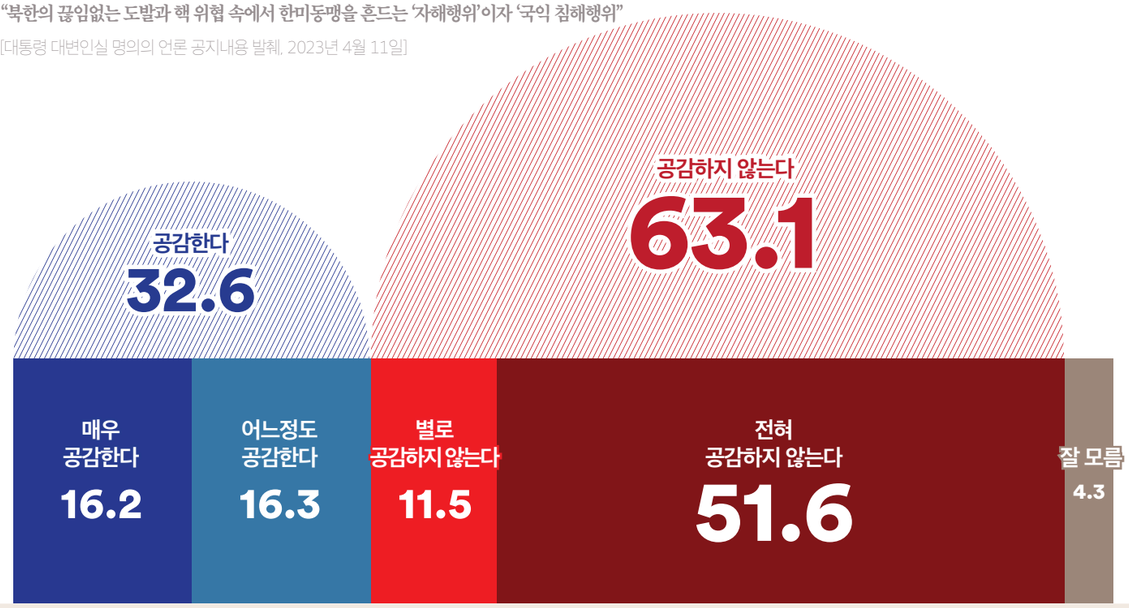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실 도청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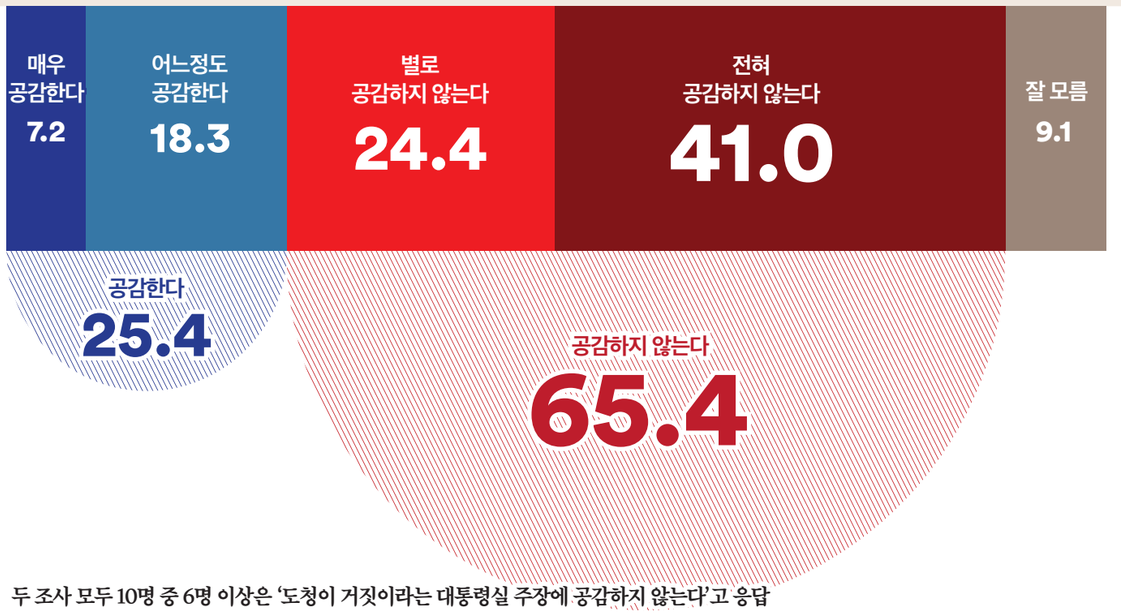
Q.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의 이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ARS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행위'"
[대통령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내용 발췌, 2023년 4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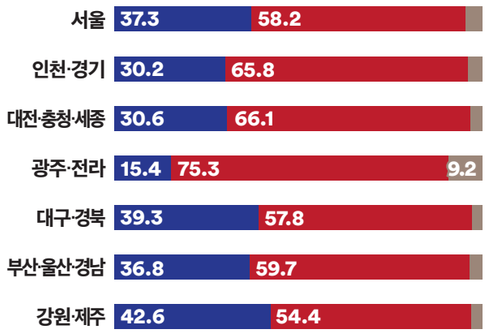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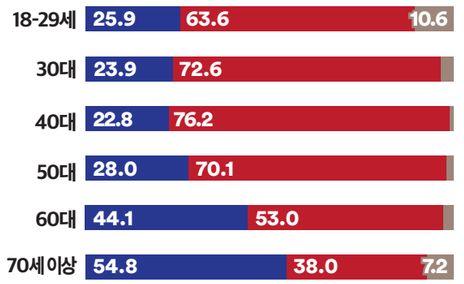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도청이 거짓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
두 조사 모두 60대 이하 응답층과 모든 성별, 모든 권역에서 '공감하지 않는다'고 앞섬
반면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은 '공감'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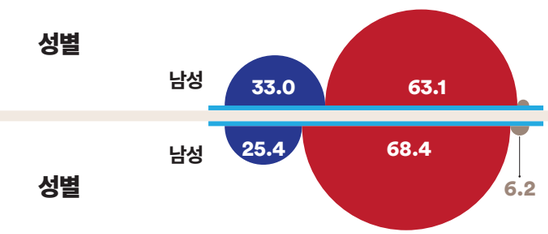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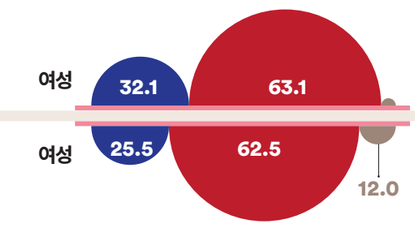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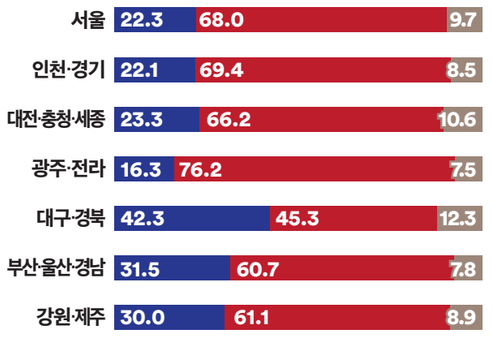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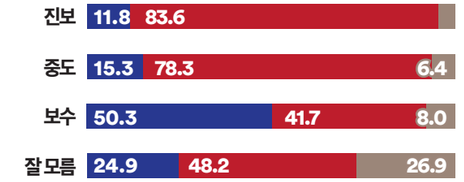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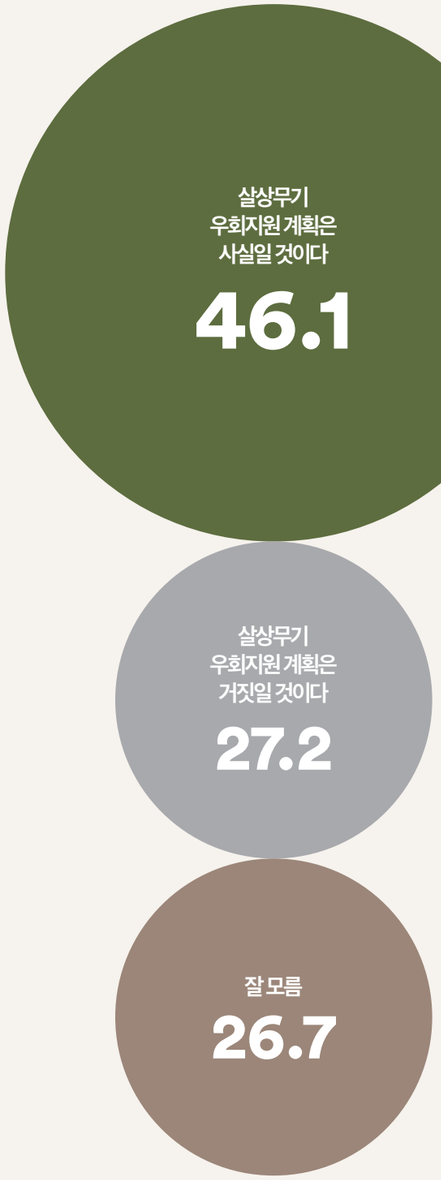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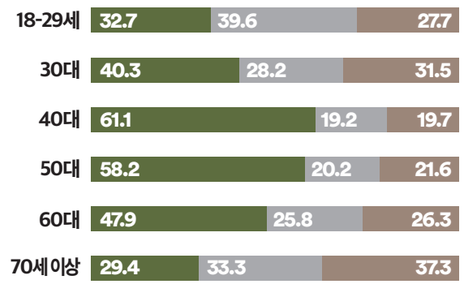
대통령실 도청 의혹: 살상무기 우회 지원

Q. 미 언론에 보도된 도청 문건에는 대통령실이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우회 지원을 계획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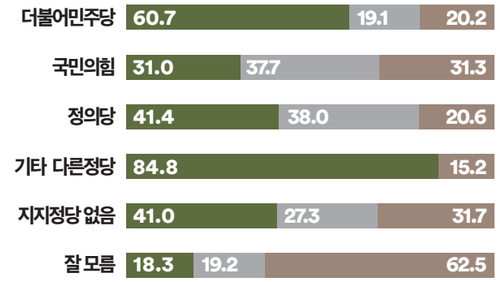


'살상무기 우회지원 계획은 사실일 것'이란 응답은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으나 응답 유보 비율 역시 적지 않음
보수층(사실 38.2% / 거짓 35.5%)과 국민의힘 지지층(사실 31.0% / 거짓 37.7%)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림
무당층(사실 41.0% / 거짓 27.3%)과 중도층(사실 53.4% / 거짓 24.1%)에서는 '사실일 것'이란 의견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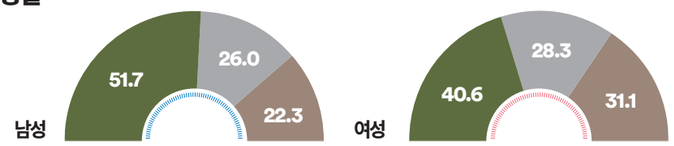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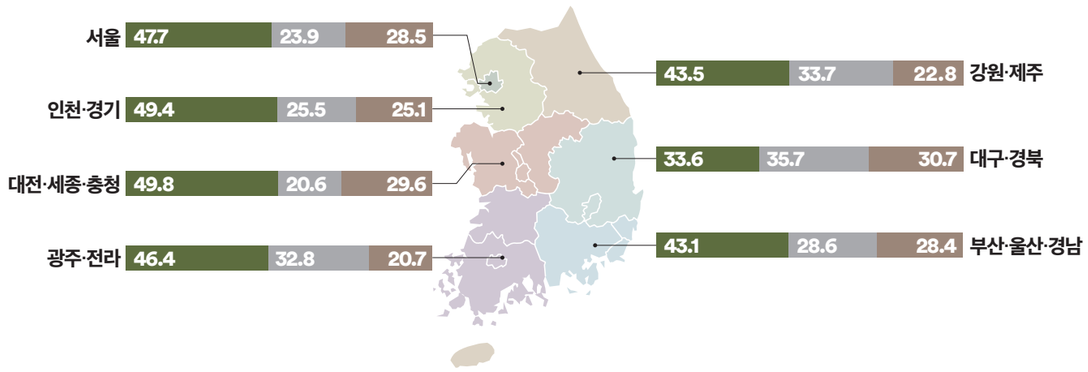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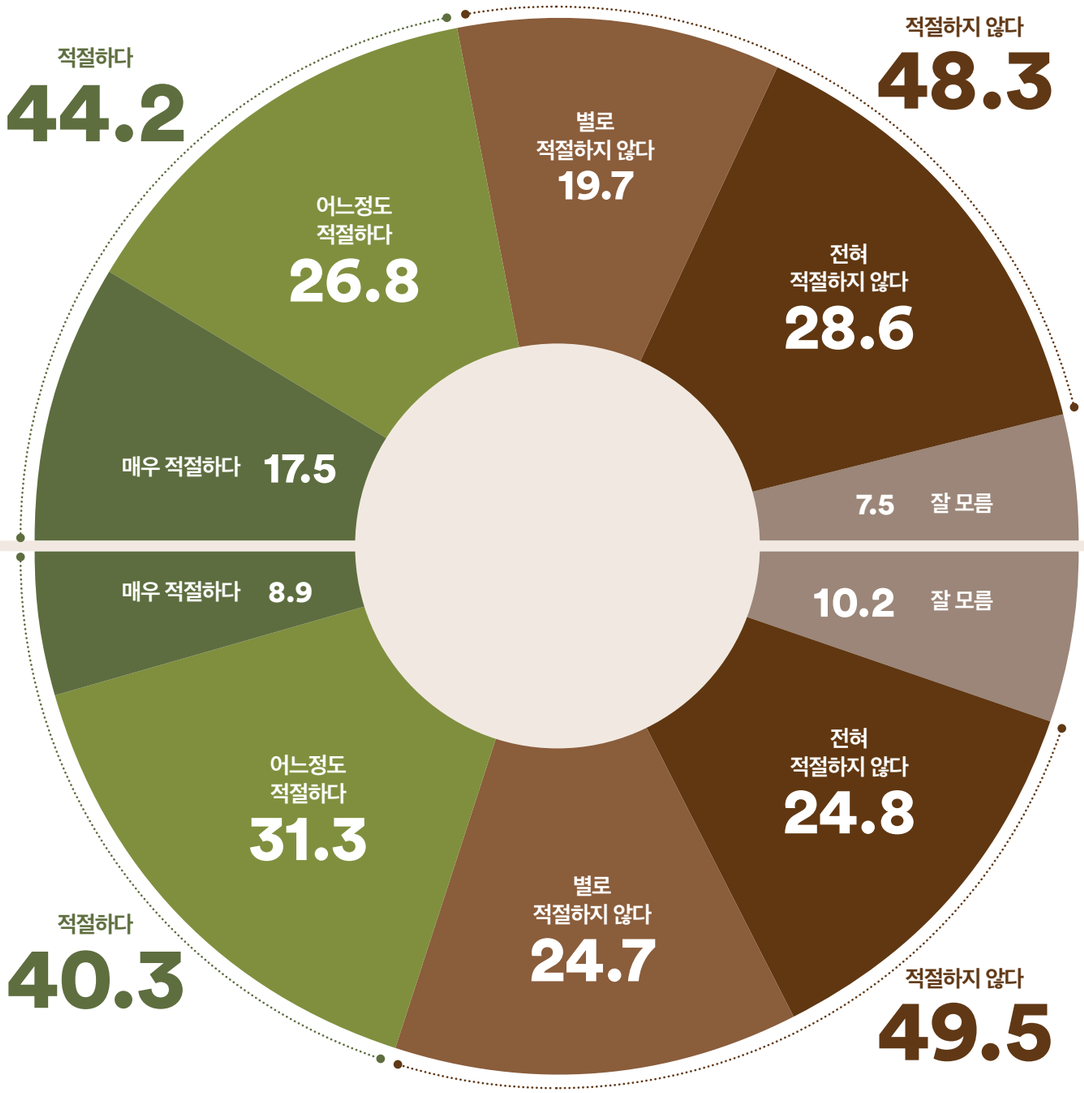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실 도청 의혹: 살상무기 우회 지원 적절성

Q. 최근 155㎜ 포탄 50만 발 미국 대여계약이 밝혀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우회지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우회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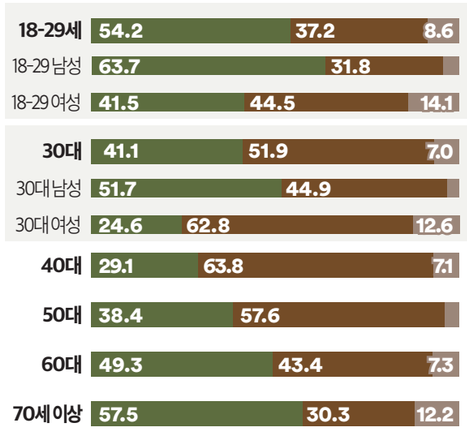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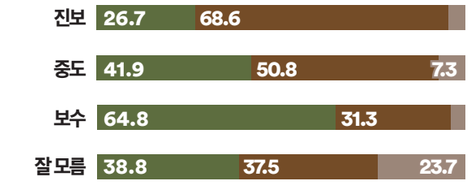
CATI

두 조사 모두 40~50대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우회 지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여성 응답자는 두 조사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우세, 남성 응답자는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부적절',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은 '적절'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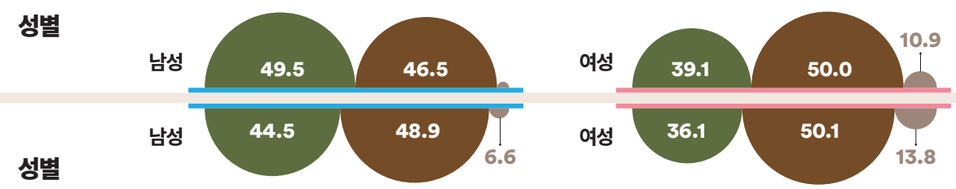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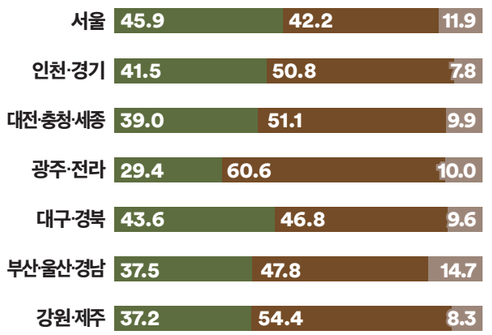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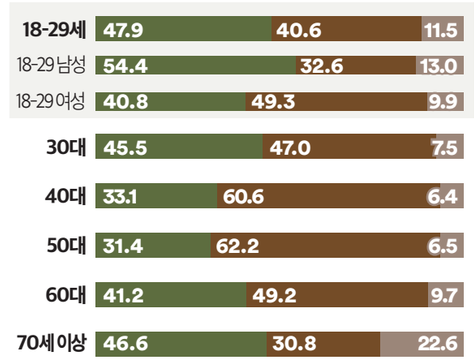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실 도청 의혹: 대통령실 졸속 이전

Q.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한 어수선한 상황이 도청의 기회를 열어줬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ARS

"지난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부터
도감청 확률이 높으니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제기 했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발언]

공감한다 **56.5**

공감하지 않는다 **38.0**

매우 공감한다	어느정도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름
42.5	14.0	15.9	22.0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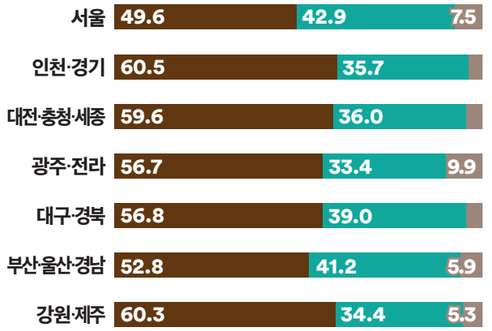
CATI

매우 공감한다	어느정도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름
30.1	22.8	23.7	15.1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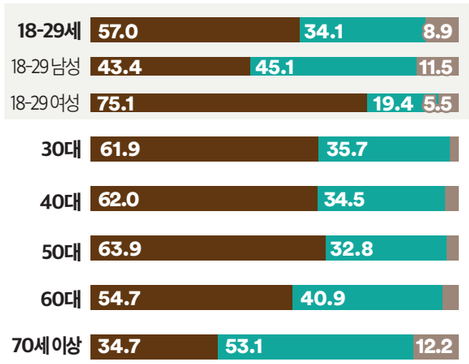
공감한다 **52.9**

공감하지 않는다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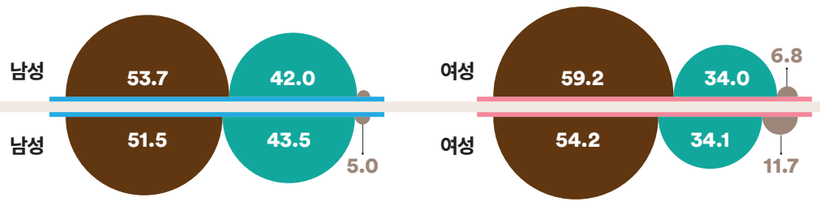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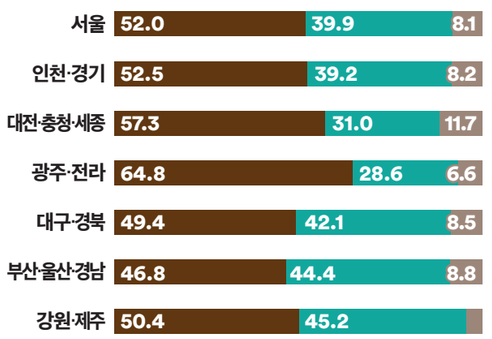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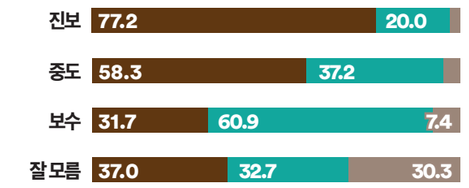
성별



권역



이념성향



공감한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모르겠다

10명중 5명 이상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도청의 기회를 열어줬을 것'이란 의견에 공감
모든 성별과 권역에서 '공감' 의견이 앞섰고 30~50대 응답층(ARS 18~29세 포함)에서는 '공감' 응답이 우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공감',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은 '비공감'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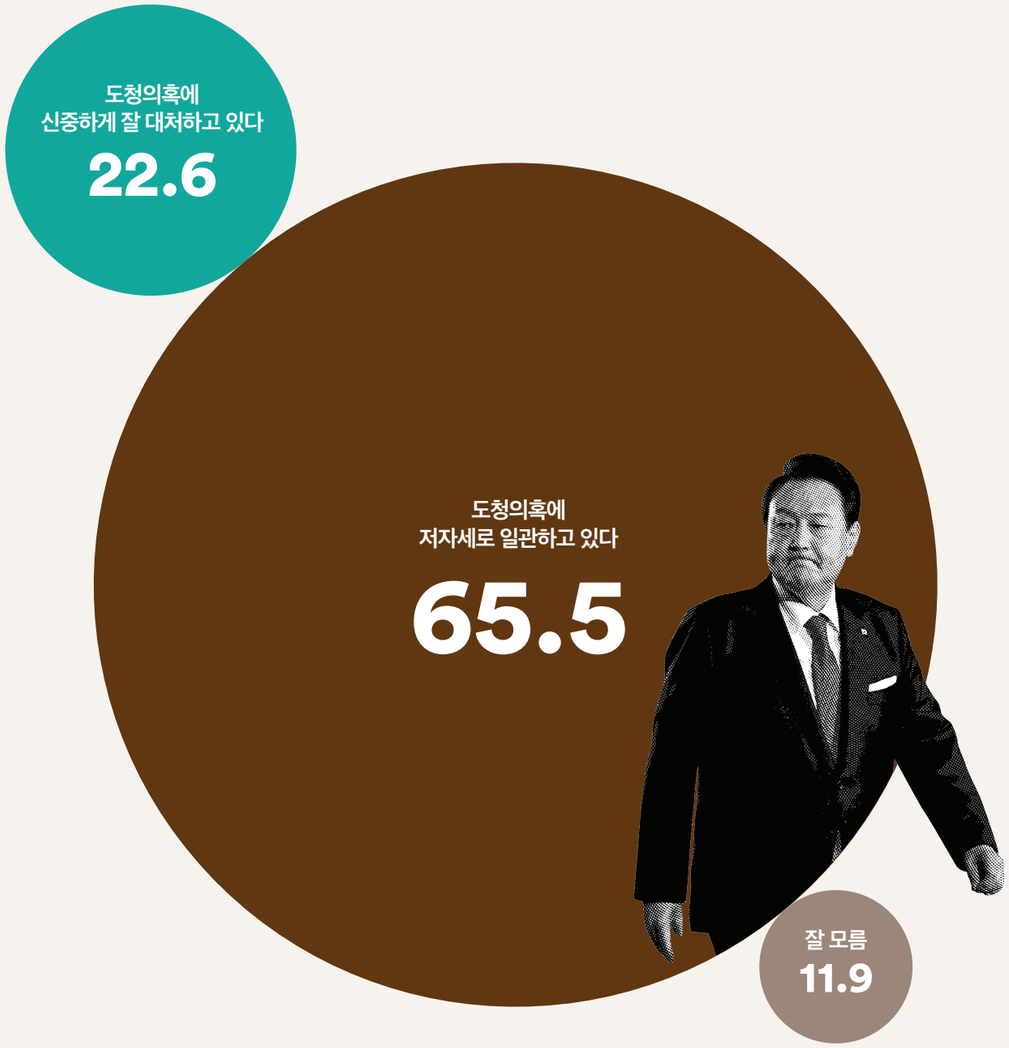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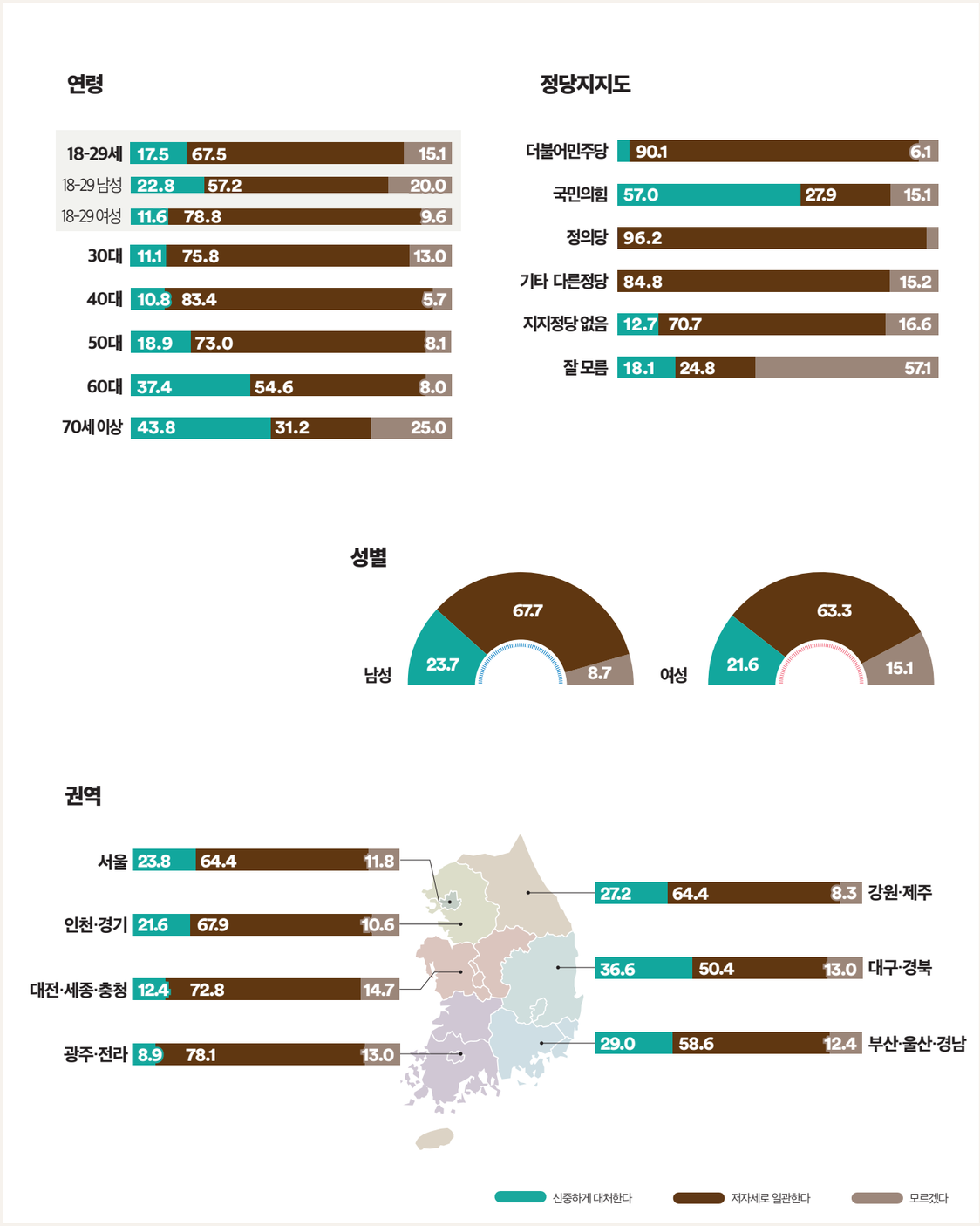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실 도청 의혹: 우리 정부 대응

Q.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명 중 6명 이상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응답해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여론이 앞섬
모든 권역과 성별, 60대이하 응답층, 무당층(70.7%)과 중도층(77.6%)에서도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신중 57.0% / 저자세 27.9%), 보수층(신중 47.5% / 저자세 40.1%)로 긍정 여론이 앞섬

무단 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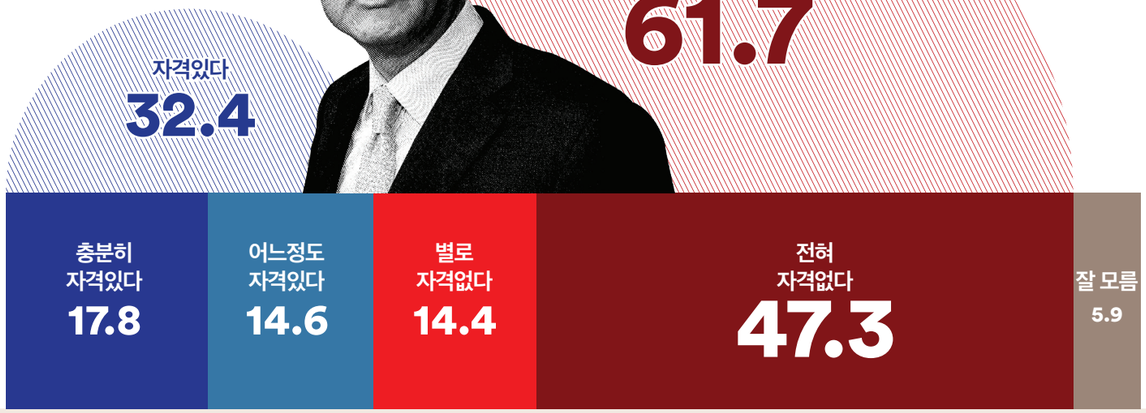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실 도청 의혹: 외교·안보 책임자의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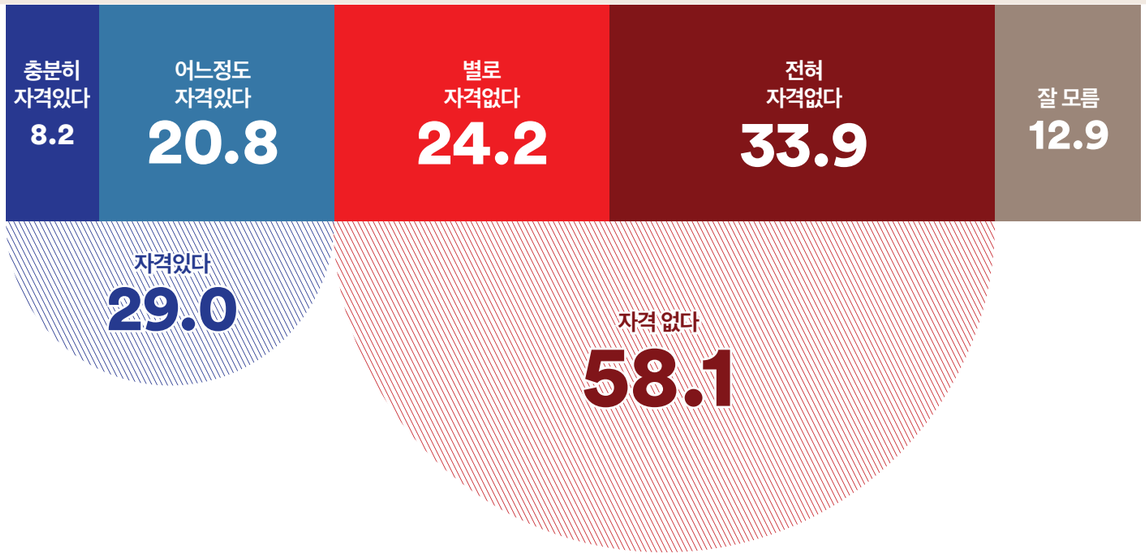
Q.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의 외교·안보 책임자로서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2023년 4월 11일 발언]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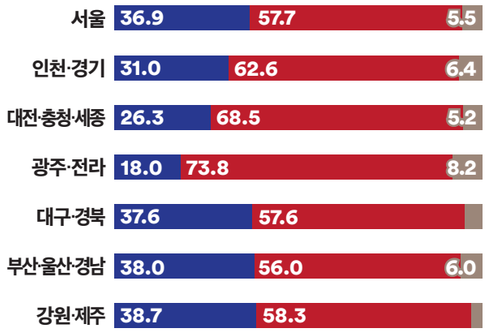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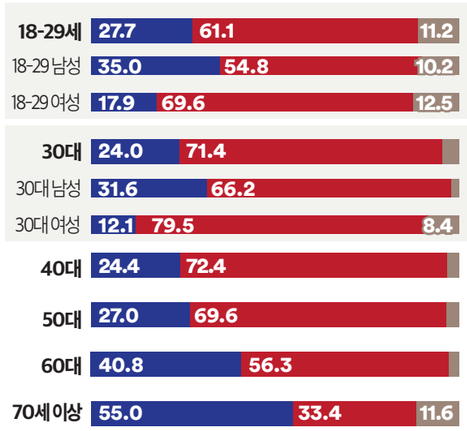


10명중 6명 정도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외교·안보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응답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권역·성별에서 외교·안보 책임자로서 '자격 없다'는 응답이 앞섬
'자격없다'는 응답은 무당층(ARS 68.8% / CATI 54.8%), 중도층(ARS 67.7% / CATI 71.8%)로 김태효 차장에 대한 부정여론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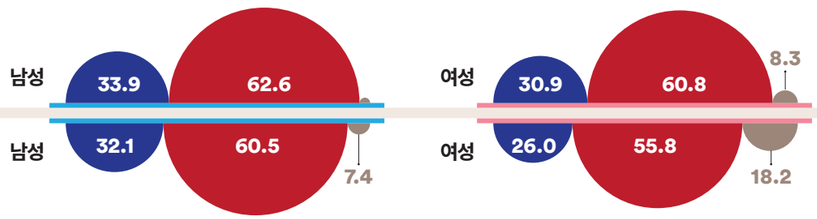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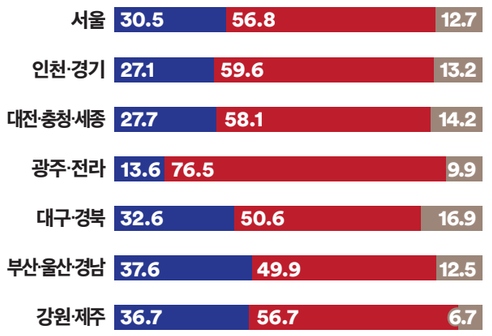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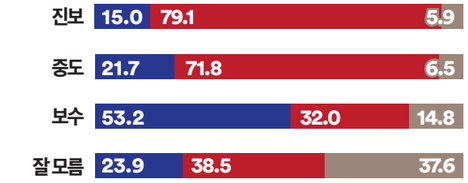
성별



권역



이념성향



자격있다 / 자격없다 / 모르겠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여론조사꽃 제3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윤정부의 외교, 국민의힘 이슈

CATI

정치•사회 현안

윤 정부의 외교: 대일 외교

윤 정부의 외교: 대중국 외교 방향

국민의힘: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

지난 15차 전화면접조사에서 질문했던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고 그 응답을 비교 정리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총리,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방문하며 대중국 외교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중국 노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상임고문직을 해촉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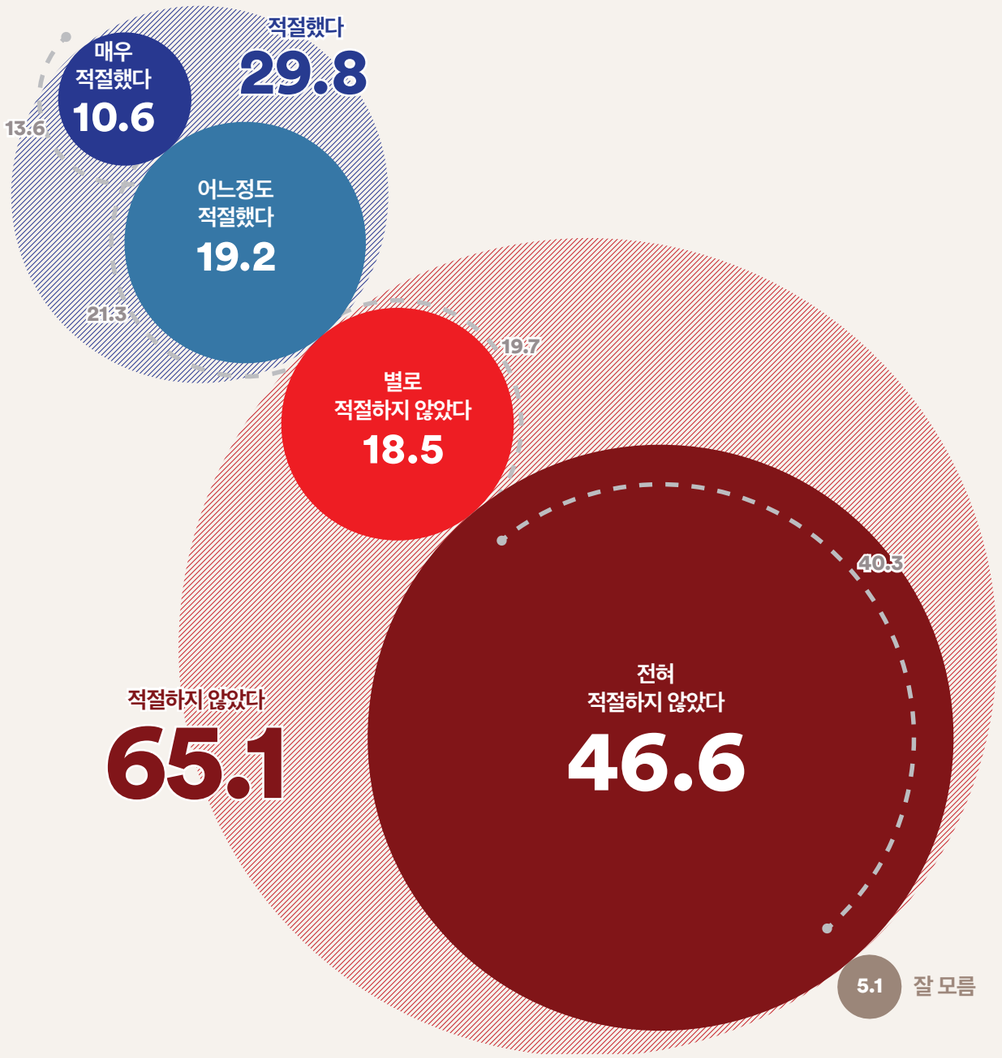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윤 정부의 외교: 대일외교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직후 “우리가 먼저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이 호응해 올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정상회담 한 달이 지난 현재, 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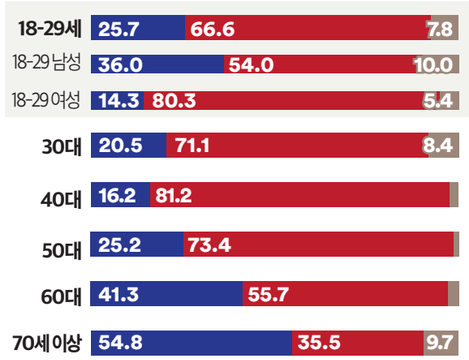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적절했다’고 응답, 지난 15차 CATI조사(적절 34.9% / 부적절 60.0% / 잘모름 5.1%)보다 부정여론 더 높아짐

TK와 70대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권역, 연령, 성별에서 ‘부적절’의견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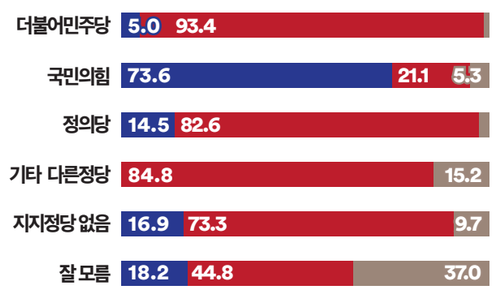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4%), 무당층(73.3%), 중도층(77.8%)은 ‘윤대통령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3.6%)과 보수층(63.8%)은 ‘윤대통령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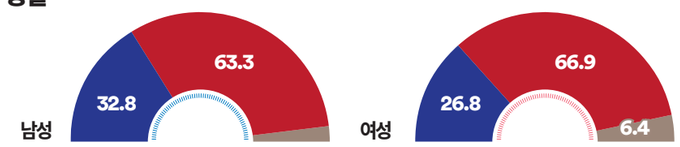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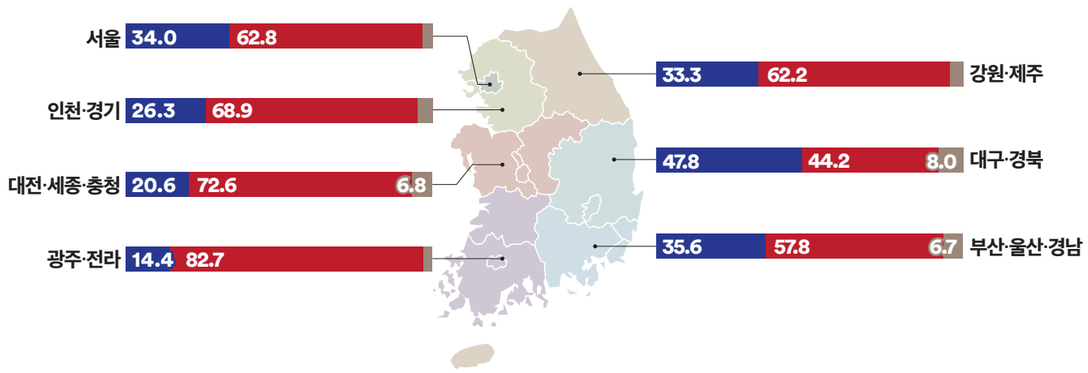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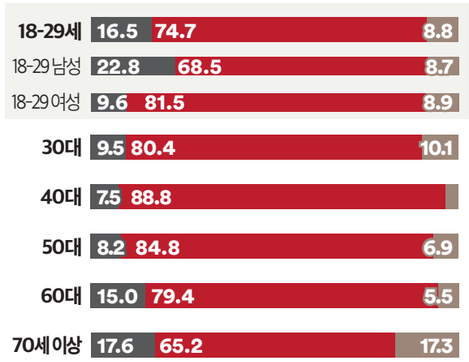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윤 정부의 외교: 대중국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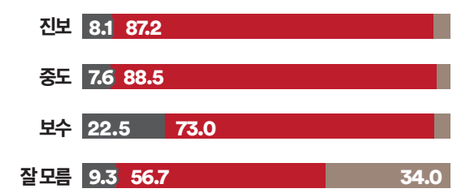
Q. 최근 독일 총리, 스페인 총리, 프랑스 대통령이 연속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교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중국 노선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중-경제, 미-안보 동시 추구'란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
지난 16차 CATI조사에서 '중국과의 외교방향을 협력적인 관계로 바꿔야 한다(71.5%)'는 의견보다 더 높은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69.7%)과 보수층(73.0%)에서도 '중-경제, 미-안보 동시 추구'란 응답이 우세
무당층(77.1%)과 중도층(88.5%)에서도 '중-경제, 미-안보 동시 추구'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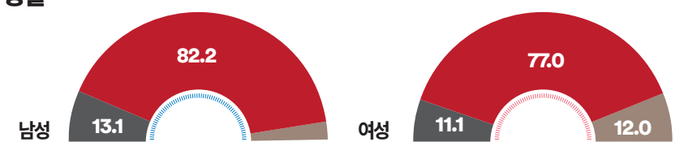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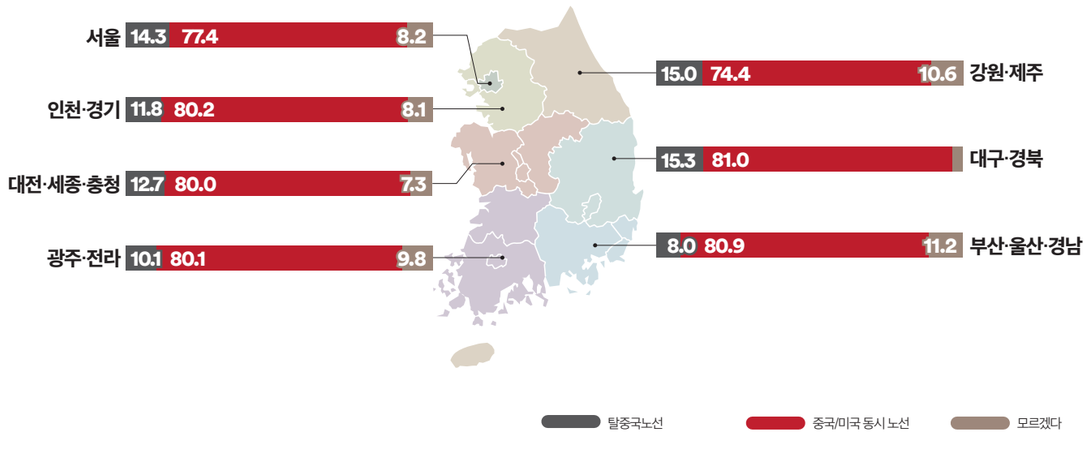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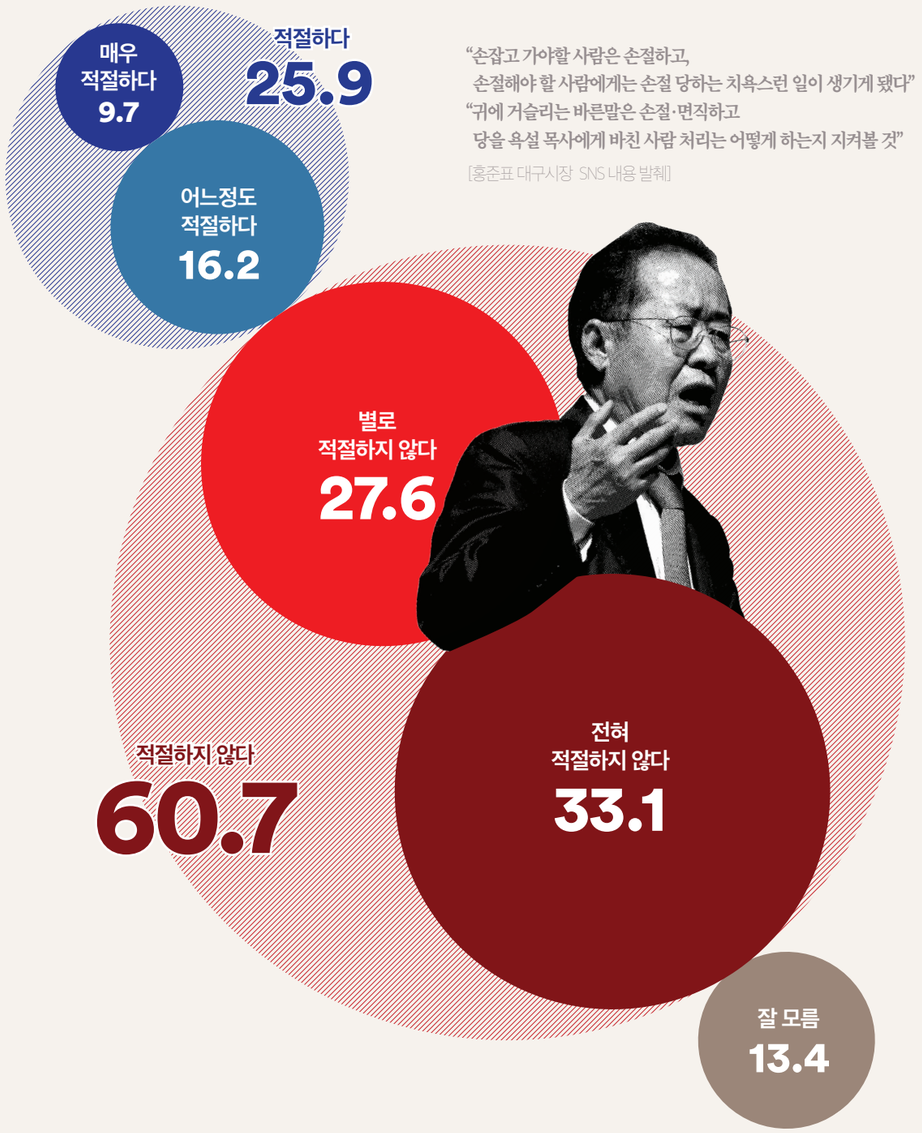
무단 배포 금지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국민의힘: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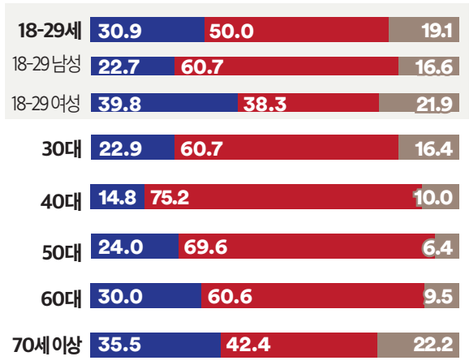
Q.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갈등을 빚은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임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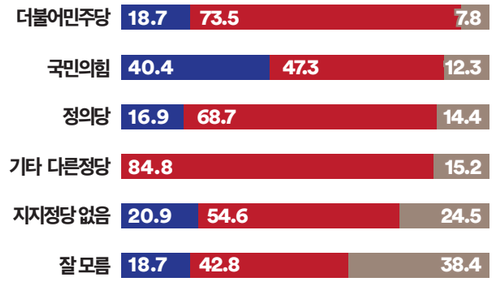
"손잡고 가야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는 손절 당하는 치욕스런 일이 생기게 됐다"
"귀에 거슬리는 바른말은 손절·면직하고
당을 욕설 목사에게 바친 사람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
[홍준표 대구시장 SNS 내용 발췌]

10명 중 6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모든 권역과 성별, 연령, 무당층(54.6%)과 중도층(72.2%)에서도 '부적절' 응답이 앞섬
국민의힘 지지층(적절 40.4% / 부적절 47.3%)과 보수층(적절 37.6% / 부적절 51.0%)도 부정적 의견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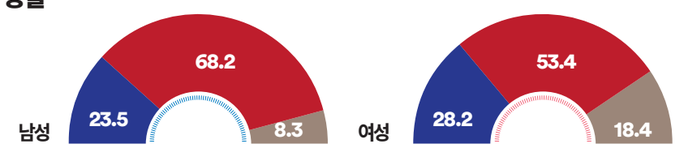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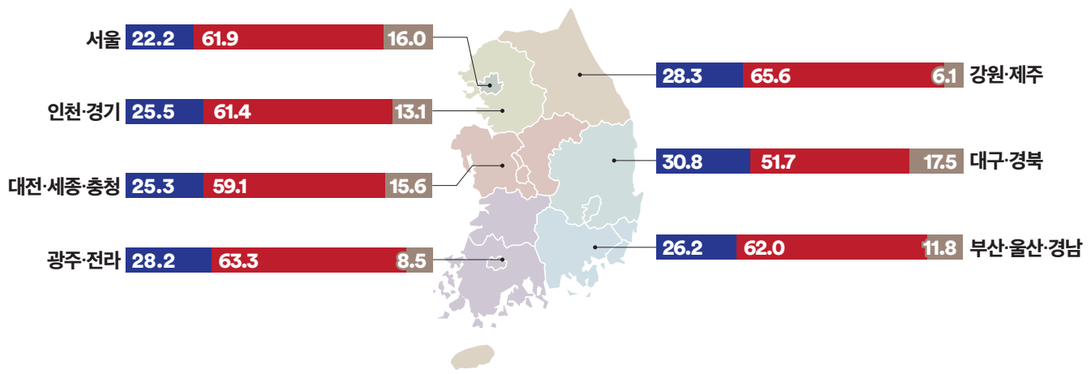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무단 배포 금지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REPORT #202304_03

여론조사꽃 제3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